

2027 WYD 수원 교구대회 개요



주요 목표

신앙 탐구와 순교, 그리고 복음화를 통해 한국 교회가 창립되었고, 바로 그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이 수원교구입니다. 2027 WYD 수원 교구대회는 이 깊은 영성과 신앙의 뿌리를 오늘의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가치로 재해석하며, 수원교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의 성지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젊은이들의 탐구로 교회가 태어나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하며, 서로를 지켜낸 공동체가 살아 있는 복음의 기록입니다.

이 성지들을 중심으로 열리는 교구대회는,

젊은이들이 신앙의 역사를 직접 걷고 보고 체험하며 자발적으로 영적인 뿌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교회의 어떤 일꾼인지 깨닫는 주체적 신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용기, 공동체의 연대, 복음 선포의 굳센 의지로 보여 주었던 젊은이들의 신앙은, 오늘의 청년들을 구체적 인 행동으로 살아내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7 WYD 수원 교구대회는, 뿌리에서 흘러나온 젊음과 용기, 공동체성과 복음적 실천을 담은 수원교구의 영성적 정체성을 세계 청년들과 나누는 풍요로운 은총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공동선을 열망하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는 청년 이백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청년 김대건입니다.

우리는 수원교구 청년 신앙인입니다.”

수원 교구대회 영성

수원 교구대회를 통해 우리는 전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교구의 영성을 나눌 것입니다. 특히 교구 내 14개의 성지는 초기 한국 교회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흔적이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성지는 **수원교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수원 교구대회는 교구의 뿌리를 온 몸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성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 교육의 현장**입니다.

성지는 수원교구 사목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현장 교과서**입니다.

수원교구가 강조해 온 핵심 사목은 성지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원 교구대회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은 성지의 영성을 7성사와 연결합니다.

성지는 **성사의 은총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리교육의 장소**입니다.



수원교구를 방문하는 전세계의 젊은 순례자들은 한국 천주교인들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아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27 WYD 수원 교구대회에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주제 성구는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날**의 ‘환대’는 서로를 맞이하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마음을 열어 서로를 바라보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젊음의 잠재력과 희망의 첫걸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성지순례와 지역 문화 탐방은, 수원교구의 뿌리를 따라 걸으며 신앙의 이야기를 몸으로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순례길에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하며 신앙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순교와 복음화의 자리에서 드러났던 용기와 신앙의 깊이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증언하는 행동**과, **생명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넷째 날의 축제와 찬양, 파견미사는 그동안의 체험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은 받은 은총을 기쁨으로 나누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젊은 교회의 힘과 활력**을 체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복음의 생명을 다시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 서울 본대회로의 이동은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증언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청년들이 ‘젊음’을 다시 정의하고, ‘희망’을 선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약속’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로 이어집니다.

수원 교구대회 일정

1일차
(7월 29일)

환대(환영)

- 젊음의 잠재력과 희망의 첫걸음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 순례자들은 배정된 본당 또는 공동 숙소로(피정의 집, 연수원, 학교 등) 이동
 - 공항 ↔ 수원교구청 셔틀버스 운영(DOC 담당)
 - 교구청에서 순례자들에게 교구대회 순례자 키트³⁾ 지급
 - 수원교구청 → 각 지구/본당으로 이동(지구 VOC, 본당 POC 담당)
- 지구 혹은 본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환영하는 예식(환영 미사) 거행
- 환영 저녁 식사는 지구 VOC 또는 본당 POC 또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준비
- 홈스테이 호스트와 만남(이외 인원은 공동 숙소 혹은 본당 교리실에서 숙박)

3) 수원 DID 안내 자료, 기념품(T셔츠, 모자, 손수건 등) 업체들과 제작 논의 중.



성지순례 & 지역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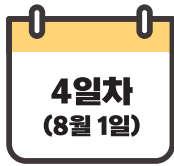
신앙의 주제 : 희망의 증언과 생명의 약속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 교구대회의 핵심은 순례(성지와 지역 문화)
 -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수원교구 내 14개 성지 가운데 이동 가능한 성지를 순례하고 지역 명소에서 문화를 체험
 - 방문할 성지와 지역 명소는 본당 POC 혹은 지구 VOC에서 선정
- 가급적 5~10명의 순례자와 1~2명의 인솔 봉사자(VOC, POC)가 함께 그룹을 이루어 순례하기를 권장
- 인솔 봉사자(VOC, POC)에게는 필요한 자료 제공 예정
- 성지마다 언어권별 성지 해설사가 배치 예정
- 성지 순례 외에 교회의 축제(지구 / 본당 등에서 주관하는) 혹은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⁴⁾에 참여 가능

4) 저녁에 열리는 교회의 축제는 성지의 영성이나 본당 특색에 어울리는 축제, 지구 단위에서 기획하는 한국 음식 요리 체험이나 찬양의 축제,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젊은이들과 함께 수원교구 안에서의 기쁨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틀 중 다른 날에는 지역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입니다.



찬양과 파견미사

젊은 교회의 힘과 활력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 지구 VOC, 본당 POC를 중심으로 기획
 - 인근 지구 VOC 및 본당 POC와 연합으로 기획 가능
 - 찬양과 파견미사 장소는 WYD 사무국과 지구 VOC가 협의하여 선정
- 순례자들은 본당 POC 봉사자와 함께 찬양/미사에 참여(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동반 가능)
 - 홈스테이 호스트 혹은 본당 POC 봉사자들과 함께 친교와 나눔에 참여
 - 예시) 지구 연합 성가 축제, 레크레이션, 외국 순례자들이 준비한 전통문화 나눔 / 성가 공연, 한국의 전통 음식 나눔. 지구 및 본당 기념품 나눔





본대회 파견 (환송)

절음 : 희망의 증언과 생명의 약속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 정해진 시간에 지구 혹은 본당 차원에서 본대회로 이동하는 순례자들을 환송
 - 단일 국가 혹은 특정 교구 순례자들이 여러 본당으로 흩어진 경우, 지구 혹은 지정된 본당으로 집결하여 환송
 - 공동 숙소에 머문 순례자들은 해당 숙소 봉사자들이 환송
 - 단일 국가 혹은 특정 교구 순례자들이 여러 공동 숙소로 흩어진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집결하여 환송

※ 서울대교구 교구대회 담당 부서와 이동 경로 논의 중.